



충남도교육청 교육도우미제 운영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도우미' 모습. 충남도교육청 제공

어려운 아이들에 '나눔의 가르침'

충남도교육청은 스마트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충남 교육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초·중·고 153개교에 방과후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수준별 수업보조, 체험학습, 학습상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운영학교 추가 선정을 통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운영한 학부모교육도우미제는 지난해 학부모 2145명(2009년 대비 101% 증가), 학생 2만 5819명(2009년 대비 84% 증가)이 참여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학습상담, 과제·특서지도 및 중·고생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했다. 또 초·중·고 352개교 1만 6029명의 학생들에게 3275명의 대학생들이 수준별 수업보조, 학습지도·학습상담 등을 실시했다.

학생 안전생활지원을 위해 전국모범 운전지휘충남지부, 해병대전우회충남연합회,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등 153개 기관·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귀가차량 지원, 교통지도, 학교주변 취약지구 순찰 등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활발히 전개해 사교육 경감과 학력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사교육비 감소에 서도 도교육청의 교육도우미제 따른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도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독서, 과제 해결,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 맞벌이·저소득층 자녀를 돌보고 있고, 중·고등 학생에게는 학습 지도 및 EBS 방송교육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 등 153개 단체 교육활동 지원 사교육비 절감효과·학력 향상에 기여

대학생 교육도우미도 수준별 수업의 보조교사,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체험학습지도, 특별보충과정지도, 학습 상담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자신감 형성 및 기초학습 능력을 키우고 있다.

최정준 기자 inspr@qjbo.com

보령주포초

개교 100주년 학교문집 '해산루' 발간

보령 주포초등학교는 201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문집 '해산루' 제9호를 발간했다. '해산루'에는 발간사, 격려사, 축사를 비롯 각 학년 글과 그림, 작품 및 추억사진을 담았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상작 모음도 실었다. 특히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이 그려진 모습들을 주요역사관이라는 코너에 새롭게 구성했다. 윤여철 교장은 "작품 공개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안남면초



졸업생 대상 범죄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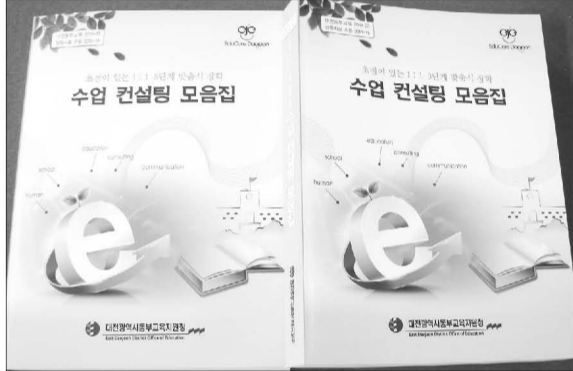
태안 남면중학교는 지난 16일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남면파출소 이승후 소장이 강의를 진행했고, 오토바이 절도, 습득물 미신고와 같이 청소년기에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사례와 그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이 소개됐다.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안내하는 등 준비정신을 일깨웠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생소한 형사처벌 대상, 가중처벌과 같은 용어들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됐다.

전경섭 교장은 "잠깐된 졸업문화가 이슈가 되는 요즘 경찰이 졸업식에 참가해 학생들의 잘못된 졸업문화들 바로 잡는 것도 좋지만 졸업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라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실 수업 개선 컨설팅 자료집 배부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교과별 교수력 강화를 지원하는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의 수업컨설팅 결과를 실은 중심 장학자료에 담아 동부 관할 초등학교에 배부한다.

2002년부터 교육지원청 장학과 연계하면서 우수한 현장의 교수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된 방법이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을 활용한 수업컨설팅으로 교사들의 수업력 제고에 도움을 줬다. 2010년도 수업컨설팅을 요구한 교사들의 교과별 교실수업개선지원단 1대 1, 3단계 맞춤형 수업컨설팅을 231회 펼쳐 면대면과 이메일, 전화, SM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전 협의회를 거쳤으며 대다수는 추후 협의 활동도 거쳤다.

이 같은 결과로 실린 중심 장학자료로 펴낸 '수업 컨설팅 모음집'에는 2011학년도 전 학년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1부는 10개 교과별로 개정 교육과정의 실천 전략을, 2부는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이 컨설팅한 수업 중 한 편을 골라 수업 전 협의의 주제와 교수·학습과정안 제안, 그리고 PMI(Plus, Minus, Interesting) 기법에 맞춰 진행된 수업 후 협의의 결과 내용을 담았다.

부여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개선 위한 중등교사 직무연수

부여교육지원청 16일까지 3일간 부여여자중학교에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수·학습개선과 효율적인 학급경영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해와 적용'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해 실시한 연수는 '좋은 수업을 위한 협동학습 적용방법 및 실습, 행복한 학급 경영을 위한 시스템 학급경영' 등 협동학습의 원리를 적용한 교수학습과 학급경영의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연수 강사로 나선 고영숙 교장(부여여자중학교)은 "좋은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와 학습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협동학습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전략으로 창의·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협동학습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연수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위촉해 교실상황에 맞는 체험 중심의 협동학습 기법을 습득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고, 참여교사를 모둠별로 나누어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심도 있게 펼쳐졌다.

아산교육지원청

고입·고졸 응시원서 오늘까지 접수

아산교육지원청은 18일까지 본청 민원실에서 2011년도 제1회 고입·고졸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 이내의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디지털사진의 경우 SW를 통한 변형금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 서식)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과목면제 관련서류(자격증 사본 등)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이다.

접수 수수료는 4000원이고, 최종학력증명서는 인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5월 12일 오전 10시 충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이뤄진다.

서산교육지원청

청정 서산교육행정 실현 위해 팔 걷어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관내 유·초·중 행정실장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정 서산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산교육지원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 개선 추진계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1년도 청렴도 향상 중점 추진 계획으로 교육장의 청렴윤리 실천의지 진화, 청렴 캠페인 전개 등 청렴 윤리의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클린 콜 센터(Clean Call Center) 운영 및 청렴기관 인증제를 시행해 서산교육지원청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보령이천도서관



장서자료 점검... 이용자 접근성 높인다

보령이천도서관은 18일까지 종합자료실 자료에 대한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장서점검을 통해 도서관의 오·훼손 자료 및 파손자료를 파악, 수정 보수하고, 배가 위치가 잘못된 자료를 확인해 제자리 배열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자료의 접근성을 높게 한다.

또 서가 및 자료의 청소작업을 병행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장서점검에는 도서관 직원뿐 아니라 평소 도서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방종합·최정준 기자 inspr@qjbo.com

광고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77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생리통 치료가 어려운 자궁질환

강남행복한의원 기능성한방좌약 '좌혈단' 화제!



'자궁 건강이 곧 여성 건강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궁은 여성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에게 있어 자궁은 임신과 출산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신체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질환을 숨기게 되는 경향이 있다. 기능성 한방좌약인 '좌혈단'은 번거로운 수술이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구약이 아니라, 환부에 직접

삽입하여 효과를 볼 수 있어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 특히 한약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집 내에 삽입하면 복강 내 이혈과 불순물을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은 물론 각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켜, 자궁 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에로부터 여성의 몸은 따뜻해야 건강하다고 했다. 이는 여성의 자궁환경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한 경우, 또는 불필요한 열이 있거나 지나치게 냉한 상태에 있게 되면 순환장애로 인해 각종 자궁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인체에 불필요한 덩어리나 이물질이 형성되고, 결국 자궁에도 이상이 생기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자궁질환이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 냉대하, 생리불순 등이다.

이러한 질환들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한방에서는 어혈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궁환경이 나빠지면서 어혈과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자궁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치료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어혈을 풀어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데 있다.

기능성 한방 좌약 좌혈단

강남행복한의원 이종욱원장은 "여성의 자궁은 월경, 임신, 출산, 폐경 등 고유한 생리현상은 복잡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섭리를 모두 주관한다"면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할 부위가 여성의 자궁이기 때문에 수술 없이 무리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한방 치료의 원리로 만들어진 '좌혈단'은 무엇보다 자극 없이 최대한 빠르게 자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좌혈단은 자연에서 채취한 한약재만을 선별 혼합해 만든 약으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적고, 무엇보다 번거롭게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환자 본인이 직접 집에 삽입만 하면 되므로 편리하다. 특히 하루 한 알을 삽입하면 15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2~3개월이면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된다. '좌혈단'과 함께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내복약 한약을 병행하게 되면 자궁질환은 물론,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져 오장육부의 균형도 좋아지게 된다.

이처럼 좌혈단은 본인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뛰어난 효능 때문에 관심과 문의가 꽤나 높다. 특히 지방이나 해외의 경우 대개 홈페이지 및 전화 02-512-6760 로 세심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능성 한방좌약 '좌혈단'의 효능이 필요한 증상들

1. 자궁근종, 난소 낭종 및 각종 자궁 내종양 양성종양으로 보존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월경불순 및 생리통: 자궁의 환경 개선, 내분비계 촉진
3. 냉증, 질 염, 골반 염: 이리베타가 차고 수축이 냉한 여성, 악취가 심할 때
4. 불감증: 부부관계 시 통증으로 부부생활을 기피하는 중년여성
5. 질수축력 증대: 중년 이후 질이 느슨해지고 수축력이 떨어질 때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760
www.kangnamh.co.kr